9월부터 '상표표시제' 폐지

喜 주유소

"정유사 경쟁에 소비자값 인하"

오는 9월부터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 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크게 반기는 반면 정유업계는 기존 유통질서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석유제품 판매 상표표시제(폴사인제) 고시'를 폐지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주유소 간 혼합판매를 인정하되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라도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해당 고시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배타적 전속계약을 조장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폴사인제가 폐지될 경우 한 주유소가 여러 정유회사와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A주유소는 제품 판매량의 약 80%를 B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품공급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 물량에 대해서는 주유소 간 거래, 선물시장,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유업계는 고시 폐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또 향후 판매망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 조치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A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유통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을 촉발해도 가격인하 효과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여러 정유사 제품이 섞이는 과정에서 품질만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유소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업계는 "지난 16년간의 숙원 사업이 이제야 해결됐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로 16년간 유지된 정유업계의 과점체제가 깨질 수 있게 됐다"며 "각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를 자유롭게 옮길 경우 자연스럽게 정유사 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폴사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 간 품질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悲 정유사

"인하 효과 미미 품질 저하 우려"

대한조선 첫 건조 17만t급 벌크선 오늘 명명식

'글로벌 조선' 첫발 내딛다

납기 지연없이 선주에 인도 '사상 유례없는 기록'

지역민 초청 가요 공연 등 다채로운 전야제 행사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최초로 건조한 선박 'HN-1001호' 명명식이 20일 오전 해남군 화원면 해남조선소에서 거행된다.

이날 명명식을 갖는 선박은 대한조선이 지난 2006년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으로부터 수주한 전장 289m, 폭 45m 규모의 17만500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이다.

이 선박은 지난해 8월 용골거치식에 이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 10개월만에 완성돼 오는 27일 선주측에 인도된뒤 곡물·철광석 등을 운반하게 된다.

이로써 신생조선사인 대한조선은 납기 지연없이 계약기간내에 첫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는 조선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HN-1001호'는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 중 최초로 국제선급연합회(IACS)가 규정한 공통규조규칙(CSR) 기준을 충족시킨 친환경 선박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대한조선은 건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첫 선박 건조와 계약기간내 인도를 계기로 '글로벌 조선'을 추구하는 대한조선의 성장세도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남조선소 1도크에서는 두번째 선박의 건조 공정이 70%를 웃돌고 있어, 오는 8월말 인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에만 모두 5척의 케이프사이즈급 벌크선을 건조, 인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말 착공한 제 2도크 건설 역시 굴착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등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2도크는 길이 460m, 폭 115m 규모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등 2종류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

올 안에 완공돼 내년부터 이곳에서만 연간 14척의 배가 건조될 예정이다.

이날 명명식에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부인 최수복씨가 선박 이름을 명명하는 스폰서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대한조선은 명명식에 앞서 19일 밤7시20분 해남조선소 부지에서 해남군민 등을 초청, 가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전야제 행사를 가졌다.

개그맨 강성범의 사회로 1시간 동안 진행된 가요공연에는 박현빈, 코요테, 김수희, 김국환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시, 佛 광통신 업체 투자유치

200만달러 협약 … 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 나서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프랑스 광통신 부품업체인 3S 포토닉스사와 200만달러 투자 및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투자대상기업인 (주)코셋 오치형 회장, 박광태 광주시장, 알렉산더 크리빈 3S 포토닉스사 대표이사. 〈광주시제공〉

프랑스의 세계적인 광통신 부품업체가 광주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프랑스 광통신 부품업체 '3S 포토닉스사'로부터 200만달러의 투자유치와 함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R&D), 수출선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3S 포토닉스사'는 광주의 레이저·광섬유 핵심부품 제조 전문업체인 (주)코셋에 200만 달러의 자본 투자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20만개 규모의 물량을 수주하고 최첨단 레이저 모듈에 관한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다.

또 (주)코셋은 총 1천억여원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세계적인 광부품회사인 '3S 포토닉스사'는 자체 개발한 첨단 레이저 광전자칩을 바탕으로 농동 소자와 FBG(Fiber Bragg Gratings : 광섬유 브래그 격자배열형 센서) 기술 기반의 수동소자 설계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연 매출액은 8천만달러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치우쳤던 해외 투자유치 지역의 다변화는 물론 광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조5천억 사료구매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사슴·토끼 농가도 지원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축산업 등록사업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 농가 뿐 아니라 사슴·말·산양·메추리·토끼·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기타 가축 사육 농가들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조건은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 돼지·닭 등은 2년 분할 상환이다. 앞서 이뤄진 1조원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1년 일시 상환'에 비해 길어졌다.

금리도 기존의 3% 중 정부와 농협이 각각 1%씩 떠맡아 농가가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1%로 낮아졌다.

이전 조건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빌린 농가들도 대출 취급기관에 요청하면 새로운 금리 및 상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4월 중 광주 제조·도소매업 부도액 149억

지난달 광주지역은 유가급등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부도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총 부도액은 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44억4천만원)에 비해 3.2%(4억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어음부도율도 전달(0.72%)보다 0.15%p 증가한 0.87%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부도액이 33억5천만원으로 전달보다 9.1%(2억8천만원) 늘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도 부도액이 35억1천만원에 달하면서 24%(6억8천만원) 증가했다.

이처럼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부도액이 늘어난 것은 올 들어 유가 등 원자재값이 연일 치솟은 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광주의 경우 지난달 신설법인 수가 110개에 그치면서 전달보다 19.1%(26개) 감소할 만큼 창업 둔화추세가 두드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하남 2지구 국민임대 886가구 공급

광주시도시공사 … 무주택자 대상 내년 6월 입주

광주시도시공사(사장 김영진)는 하남2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 886가구〈조감도〉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하남2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66㎡~68㎡형 676가구, 79㎡형 210가구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66㎡~68㎡형이 2천300만원에 13만8천원, 79㎡형이 2천800만원에 19만2천원이며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세대원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57만2천800원 이하여야 하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 공급대상이다.

신청은 7월 21일 우선 공급대상자, 7월 22일은 일반 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내 국민생활관 1층에서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월 7일, 계약체결은 광주시도시공사 고객봉사실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문의는 도시공사 주택행정팀(062-600-6732~8).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